

< 제 7 장 >

요 7:5-6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함”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 호 카이로스 호 에모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ὁ καιρὸς”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결정적 시점을 의미한다. 관사가 반복된 표현은 그 “때”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정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기대나 강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계획된 때에 따라 행동하신다. 사람들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행동하신다. 이것이 모든 사역의 기준이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와 형제들의 “때”를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때는 정하신 시점이지만, 형제들의 때는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작정하신 시점에 따라 행하신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다려야 할 ‘카이로스’가 없고,음을 암시한다. ‘크로노스’(χρόνος)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들은 “지금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흐름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의해 행하여 진다.

인간은 흐르는 시간(크로노스)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에(카이로스) 맞추어 행하신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반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이와 같이 시간의 기준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누구의 때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앙은 ‘크로노스’의 조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분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역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와 ‘시간’의 구분>

성경은 ‘시간’을 단순한 흐름으로 보지 않고, 의미와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 “제만”(καιρός,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정된 시점으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구속사적 시간이다.

초림과 십자가, 재림과 종말과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제만’은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된 시점을 의미한다.

- “에트”(καιρός, 때)

준비와 과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성되어 가는 시간이다.

‘제만’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기간이며, 인간의 훈련과 성숙의 시간이 포함된다.

(ex. 예수님의 30년의 준비 기간, 개인의 소명과 훈련의 시간)

- “호라”(ώρα,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으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구속의 사건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요7:6](#)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호라)가 아직 안 되었음을 말한다.

<두 종류의 시간>

- “καιρός”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결정적 순간이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성취되는 순간이며, 인간에게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인간이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주권적 시점으로, 인간은 이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오직 분별하고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카이로스’는 단순히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에 대한 시간이다.

- “χρόνος” (크로노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며, 측정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가 찾아오며, 그 만남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인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한 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완성을 향하여 일하신다. ‘크로노스’의 진행과 ‘카이로스’의 개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준비의 시간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결단의 순간을 놓쳐서도 안 된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영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트 카이로스” : 사명을 받고 준비하며 나가는 때.(신학+훈련)

“제만 카이로스” : 준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할 때.(안수 받고 사역할 때)

“카타 카이로스” :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타내는 특정한 시점.

요 7:6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절 “내 때”(ὁ καιρός ὁ ἐμός)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의 결정적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시점을 가리키며, 이는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정해진 ‘제만 카이로스’이다.

이 “때”는 단순한 일정이나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결정적 시점이며,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호라”(ὥρα)와 연결된다.

8절 “내 때”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리키지만, 아직 그 성취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와 진행의 과정, 곧 ‘에트의 카이로스’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으나, 인간의 요구나 기대에 의해 그 시점을 앞당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6절**과 **8절**의 “내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다만 그 총만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6절 “너희 때”는 형제들이 살아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이다.

인간의 시간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된 시점에 따라 드러난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누구의 때인가’에 달려 있다.

6.8절 “아직”(οὐπω. 우포)은 단순한 시간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십자가의 “호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공백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준비되고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다.

6절 “준비”(πληρώω, 플레로오)는 단순히 채워진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진 분량에 도달하여 완전히 성취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와 성숙과 충만의 과정을 거쳐 드러난다.

결국 이 충만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호라”(ἔρα)이다.

요한복음에서 “호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십자가는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완전히 성취된 ‘호라’이며, 구원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결정적 시점이다.

요 7:10-21 명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은밀히 명절에 올라가셨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에 따른 것이었다.

‘명절 중간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14절),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15절)

이 말은 단순한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의 내용보다 그 권위의 근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16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적 지식이나 배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비롯된 계시이다.

이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후(요5:16),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 선언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19절)고 하신 말씀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형성된 살해 의도를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부인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들 안에 이미 그 계획이 진행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내면에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였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서 “뜻”(θέλημα, 델레마)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명령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려는 내적 방향성을 포함한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여기서 “영광”(δόξα, 독사)은 단순한 명예나 평판이 아니라, 존재의 권위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자기중심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대비 속에서 참된 자와 거짓된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요 7:22-23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에 대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에 있어,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에 비유하며...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왜곡한 그들의 형식적 신앙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시행되었으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정죄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외형만을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 곧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뜻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윤리와 도덕, 혹은 인간의 기준을 앞세워 신앙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외형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는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κατ’ ὄψιν 카트 옵신)는 보이는 겉모습에 따른 판단을 의미하며,

“공의롭게”(δικαίαν 디카이안)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따른 판단을 뜻한다.

“판단”(κρίσις 크리스시스)은 분별과 평가의 의미를 가지지만,

“정죄”(κατάκριμα 카타크리마)는 최종적인 유죄 선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권면”(παρακαλέω 파라칼레오)은 격려하고 세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기준 없는 판단, 곧 외형과 자기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금하신 것이다.

참된 판단은 말씀의 기준에 따른 분별이며,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권면할 수 있으나, 정죄할 수는 없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며, 인간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결국 신앙의 태도는 분명하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권면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판단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나 허물이 보일 때는, 먼저 그 허물이 무엇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한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대를 위해 기도하거나 권면해야 한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른 분별이어야 한다.>

요 7:28-36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며, 머지않아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심.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에게서 났고”(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파르 아우투 에이미)는 단순히 태어남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는 뜻으로, 예수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εἰμι’(에이미)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서, 역사적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παρ’(파라. 곁에서)는 단순한 출처를 넘어서 근원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을 둔 존재, 곧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분이심을 나타낸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ἀπέστειλέν με)에서 ‘보냄’은 요한복음의 핵심 개념으로, 단순한 사명 수행을 넘어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7:30-31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ἔρα)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황적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의 의도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붙잡으려 했으나 붙잡지 못했고, 죽이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나 비극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호라”(ῥα)의 성취이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드러난 결정적 시점이며, 구속이 실현되는 절정의 때이다.

7:33-34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암시하신다. “돌아가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명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후 다시 하나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 “돌아감”은 패배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다.

“조금 더 있다가”(ἔτι χρόνον μικρόν)는 십자가를 향해 남아 있는 시간을 가리키며, 이는 단순한 시간적 예고가 아니라, 구속사의 절정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말씀은 단순한 공간적 부재가 아니라, 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찾다”는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갈망을 포함하는 표현이지만, 그들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참된 만남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역을 가리킨다. 이는 하늘이라는 공간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원의 자리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리적 이동으로 이해하여, 예수님이 헬라인 가운데 흠어진 자들에게 가려 하는가를 묻는다.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계시는 주어졌으나, 믿음이 없을 때 그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요 7: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행사와 관련하여 “영적 생수”에 비유해서 하신 설교이다.

<출17: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초막절 기간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출17:6)을 기념하는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전통적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실 것을 예언하였고, 초막절의 물 붓는 의식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은, 그 상징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친 반석은 생수를 공급하는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반석의 실체이시다. 광야의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였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다. 따라서 이 선언은 절기 속에서 이루어진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는 메시아적 선포이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결정적인 계시이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자”(ὁ πιστεύων. 호 피스튜온)는 단회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믿고 신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는 인격적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관계적 상태이다.

“그 배”(κοιλία)는 단순한 육체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며, 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이는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심령의 깊은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생명은 단지 개인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머물지 않고, 넘쳐 흘러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명의 원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이 완성되고, 그 이후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표현은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으나,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 임하시는 형태였다. 이는 외적 임재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 이후, 곧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함께하시는 내주의 형태로 역사하신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부여가 아니라, 존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그에 따른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요 7:40-52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간 예수님에 대한 논쟁

40절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ὁ προφήτης)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는 그리스도라” 하였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반박하였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출처에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

미가 5:2의 예언, 곧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제 출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식에 근거한 왜곡된 판단이었다.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거부한다.

이는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반응이 드러난 것이다.

45-46절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권위와 본질적 차이를 인정한 고백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갔으나, 그의 말씀 앞에서 붙들지 못하였다. 이는 외적 권위보다 더 강한, 말씀 자체의 권위가 그들을 압도하였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말씀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고 나누는 기준이 된다.

요 7:47-52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니고데모의 변론

47-49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를 무지한 자로 정죄한다.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만이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율법은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였지만, 그들은 도구에 머물러 실체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무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종교적 우월감이었다. 이 모습은 오늘의 신앙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을 갖추며, 교회 전통에 익숙할 수 있으나,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도구에 머물 뿐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교만의 근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참된 신앙은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며, 정죄가 아니라 권면으로 드러난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50-52절 니고데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상기시킨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정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율법은 먼저 듣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논리로 답하지 않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조롱하며 인신공격으로 대응한다.

진리가 도전할 때 교만은 논증이 아니라 공격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니고데모는 아직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인물이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한다.

첫째, 우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공의로운 판단은 서두르지 않고, 먼저 듣고 분별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둘째, 완전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작은 결단을 통해 자라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때”와 인간의 “판단”이 교차하는 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시간 속에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행하신다. 진리는 논쟁을 일으키기보다 사람의 중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표적 앞에서도 머물게 되고, 자기 기준에 머무르면 계시 앞에서도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신앙은 즉각적인 확증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며 분별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는 생수의 약속에 이르지만, 자기 기준에 머무는 자는 끝내 논쟁 속에 머물게 된다.